

보도 일시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일	2024. 8. 29.(목)
담당 부서	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	담당자	김인숙 팀 장(043-880-5421) 김진태 조사관(043-880-5425)
	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		지만석 과 장(044-205-4510) 오영남 주무관(044-205-4506)

## 추석 전 벌초, 예초기 사고와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하세요!

- 예초기 사고의 66%는 발·다리를 다치고, 82%가 피부 찢어짐이나 베임 -
- 벌쏘임 사고는 8월·9월에 절반 이상 발생, 주로 50대·60대에서 많이 쏘여 -

한국소비자원(원장 윤수현)은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풀베기 작업 시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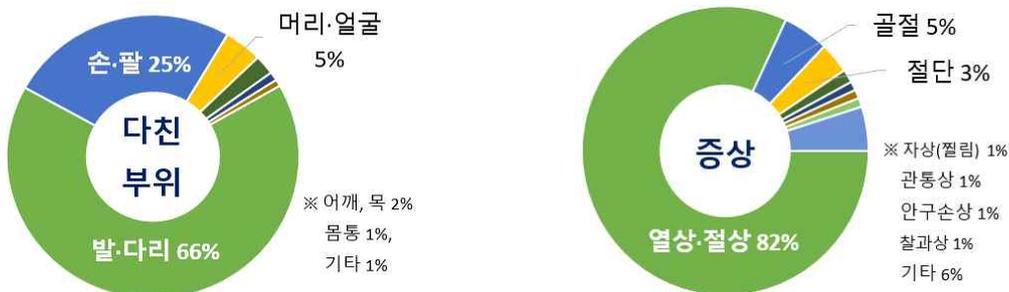
□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405건이며,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.

[최근 5년('19~'23)간 예초기 안전사고 현황]



[출처: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, 한국소비자원]

○ 예초기 사고로 다치는 부위로는 '발·다리'가 66%로 가장 많았고, 이어 '손·팔' 25%, '머리·얼굴' 5%, '어깨·목' 2% 순으로 많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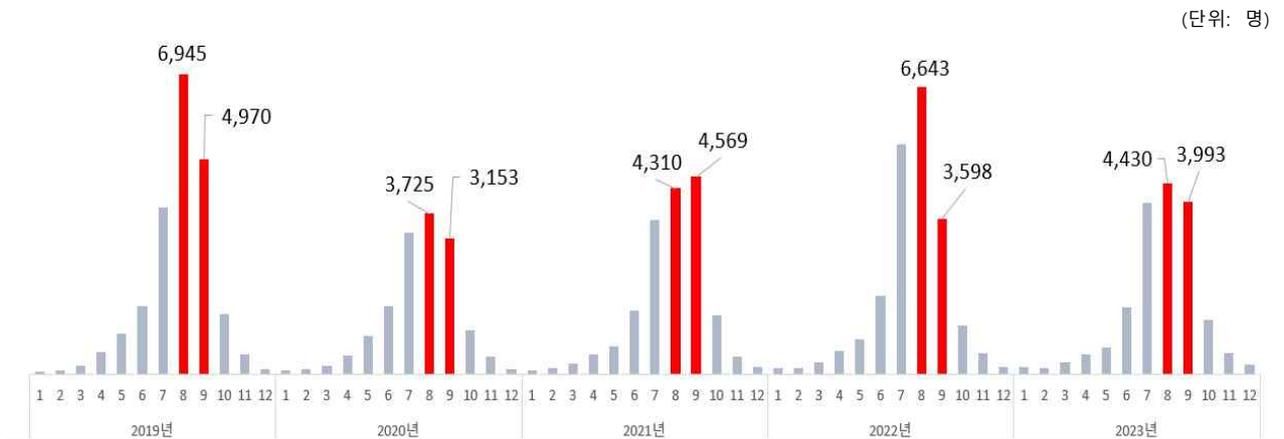
○ 증상별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‘열상·절상’이고, 발생 건수는 적지만 골절, 절단, 안구손상 등 상해가 큰 사고도 있었다.

- 예초기 날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 이외에도 돌 등이 튀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□ 또한, 가을철로 접어들며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므로 야외활동할 때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
○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92,660명이며, 이 중 절반인 50%가 8월과 9월에 집중 발생했다.

[ 최근 5년('19~'23)간 월별 벌 쏘임 환자수 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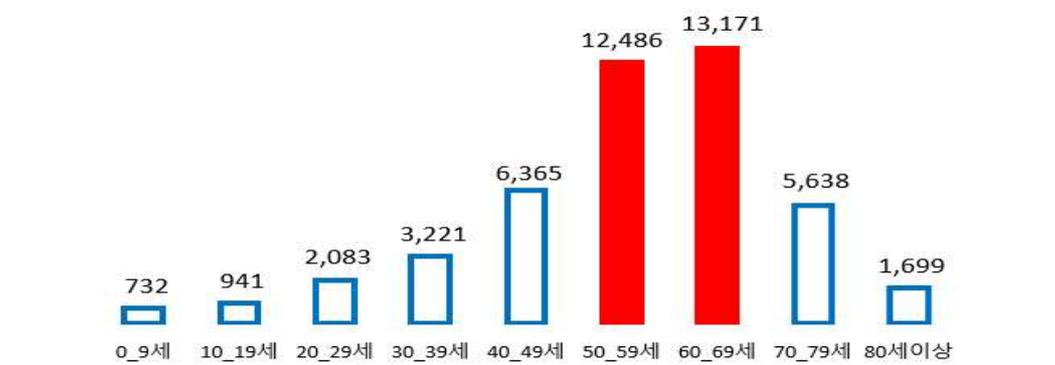


[ 출처: HIRA빅데이터개방포털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]

○ 8월과 9월에 발생한 벌 쏘임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28%(13,171명)로 가장 많았고, 이어서 50대 27%, 40대 14%, 70대에서 12% 정도 발생했다.

< 최근 5년('19~'23)간 연령대별 벌 쏘임 환자 수 >

(단위: 명)



-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.
  - 예초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, 보안경, 무릎보호대, 안전화,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.
  - 예초기는 칼날의 부착 상태와 작업봉 결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, 가급적 보호 덮개를 장착하여 사용한다.
  - 예초기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돌과 나뭇가지,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.
  - 특히, 예초기 작업 중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도록 한다.
  
- 또한, 산행이나 별초, 성묘 등 야외활동 시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.
  -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성을 나타내는 어두운색보다 밝은색 계열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,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차림이 좋다.
  - 벌을 부르는 향이 강한 화장품 등 사용을 자제하고,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.
  - 나무 사이나 땅속으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피고, 특히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류는 매우 위험하다.
    - 벌집을 발견하게 되면 선불리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한다.
  -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.
    -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면서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한다.
  -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하는 것이 좋으며,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간다.

- 한국소비자원은 “손에 익지 않은 예초기일수록 안전장비 착용을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,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이른 성묘 등을 위해 산에 갈 때는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.”라고 당부했다.
- 또한 예초기 사용 및 벌 쏘임 주의사항이 담긴 ‘국민행동요령’을 지자체 등에 배포하여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.

**<붙임> 1. 예초기 안전사고 관련 위해정보 분석 결과**  
**2. 국민행동요령**



□ (연도별) '23년 예초기 안전사고 83건, '21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

- 최근 5년간(2019~2023년)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\*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2022년 전년 대비 68.2%(30건)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83건으로 전년 대비 12.2%(9건) 증가하여 '21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임.

[ 연도별 안전사고 현황 ]

단위 : 건, %
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합계
건수	102	102	44	74	83	405
증감률	-	-	△56.9	68.2	12.2	-

\*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: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, 52개 소방서,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·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

□ (월별) 예초기 안전사고의 60%는 추석 전 벌초 시기인 '8·9월'에 발생해

- 최근 5년간 예초기 안전사고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, '9월'에 143건(35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이어서 '8월' 102건(25%), '7월' 57건(14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[ 월별 안전사고 현황 ]

단위 : 건, %

구분	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합계	비율
봄 28건(7%)	3월	1	1	1	-	3	6	2
	4월	1	1	2	6	-	10	2
	5월	1	4	2	4	1	12	3
여름 187건(46%)	6월	5	8	4	3	8	28	7
	7월	15	14	7	13	8	57	14
	8월	31	20	12	23	16	102	25
가을 180건(45%)	9월	42	46	14	13	28	143	35
	10월	2	7	1	9	12	31	8
	11월	-	-	-	3	3	6	2
겨울 10건(2%)	12월	2	1	1	-	3	7	2
	1월	2	-	-	-	-	2	0
	2월	-	-	-	-	1	1	0
합계		102	102	44	74	83	405	100

□ (연령별) 예초기 안전사고는 50대와 60대가 57%로 과반을 차지해

- 연령별 예초기 안전사고는 60대에서 125건(31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50대 106건(26%), 70대 68건(17%), 40대 51건(13%) 등의 순이었음.

[ 연령별 안전사고 현황 ]

단위 : 건, %

구분	건수	비율
10세 미만	2	0
10대	2	0
20대	6	1
30대	24	6
40대	51	13
<b>50대</b>	<b>106</b>	<b>26</b>
<b>60대</b>	<b>125</b>	<b>31</b>
70대	68	17
80대	15	5
미상	6	1
<b>합계</b>	<b>405</b>	<b>100</b>

□ (위해부위별) 66%는 '발·다리', 25%는 '손·팔'을 다친 것으로 나타나

- 예초기 안전사고를 위해부위별로 분석한 결과, '발·다리'를 다치는 비율이 66%였으며, 이 외에는 '손·팔' 25%, 머리·얼굴 5% 등의 순이었음.

[ 위해부위별 안전사고 현황 ]

단위 : 건, %

구분	건수	비율
<b>발·다리</b>	<b>269</b>	<b>66</b>
<b>손·팔</b>	<b>103</b>	<b>25</b>
머리·얼굴	17	5
어깨·목	9	2
몸통	4	1
기타	3	1
<b>합계</b>	<b>405</b>	<b>100</b>

□ (위해증상별) 예초기 안전사고 10건 중 8건은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'열상·절상'

- 예초기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찢어지는 '열상' 또는 베이는 '절상'으로 82%를 차지하였으며, 이어서 '골절' 5%, 절단 3%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[ 위해증상별 안전사고 현황 ]

단위 : 건, %

구분	건수	비율
<b>열상·절상</b>	<b>332</b>	<b>82</b>
골절	21	5
절단	14	3
자상(찢림)	6	1
관통상	4	1
안구손상	4	1
찰과상	4	1
기타*	20	6
<b>합계</b>	<b>405</b>	<b>100</b>

\* 기타 및 위해증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

□ 주요 사례

[ 예초기 안전사고 주요 사례 ]

구분	내용
1	(만 53세, 남) 산에서 벌초 중 예초기 작업하다가 왼쪽 엄지발가락이 절단되어 병원 진료를 받음.
2	(만 58세, 여) 예초기 날에 의해 왼쪽 허벅지의 지방층이 노출되는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.
3	(만 65세, 남) 예초기로 풀을 깎다가 튕겨 나온 돌을 눈에 맞은 후 통증 지속되어 병원 진료를 받음.
4	(만 65세, 남) 예초 중 빠진 날에 맞아 발생한 우측 종아리의 깊은 열상 및 출혈로 병원 진료를 받음.
5	(만 73세, 여) 예초기에 끼어 있던 풀을 잡아 빼다 날에 베여 손가락 윗마디 일부분이 절단되어 병원 진료를 받음.



# 예초기 사용주의



- ✓ 안전보호대, 보안경
- ✓ 긴팔, 긴바지, 진동방지 장갑
- ✓ 무릎보호대, 안전화
- ✓ 작업하는 15m 이내 접근금지
- ✓ 예초기 사용시 들, 나뭇가지 조심
- ✓ 닭날 아물질은 반드시 동력 차단 후 실시

# 벌쏘임 주의



## 벌에 쏘이기 전

벌에게 위협이 될 만한 큰 동작은 줄이고 천천히 그 자리를 벗어난다.

## 벌이 쏘며 공격할 때

웅크리거나 엎드리지 말고 무조건 그 자리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신속히 대피한다.

- 어두운색 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모자와 긴옷 착용
- ✗ 향이 강한 화장품, 향수, 스프레이 사용 자제
- ✗ 달콤한 향의 과일과 음료의 취급에 주의
- 벌집, 절대로 건들지 말고 119에 신고